

2023. 7. 3.(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2133-9435
-----------	-----	-----------

특화사업팀장	안규홍	2133-9452
--------	-----	-----------

담당자	김기현	2133-9454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소통 첫걸음,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 6월26일(월),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완료
- '09년 시설결정 이후 답보상태이던 사업이 '22년 오세훈 시장 현장 방문 이후 재추진 물꼬
- 전문가 참여하여 기본계획안과 사업 추진방향 주민에 공유, 의견 수렴
- 주민·성북구 지역 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 마무리, 사업 조속 추진 당부

지역 대표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가 문화·체육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6일 월요일, 정릉4동 동주민센터에서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는 '09년 시유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수년간 지역 주민의 민원과 이전 요구가 있었던 시설이다. '16년 차고지 지하화 및 문화시설(시인의 마을) 복합개발이 한차례 추진되었으나, 지속적인 이전 요구 및 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 서울시는 '22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이후 해당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지정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시설(시인의 마을) 사업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23년 3월부터 지하에 차고지를, 지상에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 이번 주민협의체 간담회에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가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기본계획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정릉 4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8인은 정릉 공영차고지가 정릉 지역의 대표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은 간담회 이후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착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은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기도 한 공영차고지를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본 사업이 정릉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점에 공감하며, 소통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위치도 및 현황
 2. 간담회 개최 사진

붙임1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 위치도 및 현황

□ 위치도



□ 현황사진



